필사적으로 세상과 성화 전쟁을 벌이는 그리스도인

롬12:1-2

지난주 요한복음 20장 강해 〈부활하신 예수님 때문에 당신의 삶이 바뀌고 있습니까?〉

부활 사건 이후의 특징: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중요한 일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서 삶이 변화되지 않은 사람은 단 한 명도 없다.

사람들의 삶이 전적으로 변하기 시작했다. 변화는 생각의 변화에서 생긴다.

오늘은 교회의 13년 동안의 과거를 살펴보고 앞으로의 목회 방향을 이야기하며 설교하려 한다.

지난 6년 동안 마제스티 성경 교정, 다음 주부터 인쇄 들어간다.

나는 세상 직업 말고 주 임무가 성경 번역자, 그 다음이 목사

이제 성경이 끝나므로 앞으로 이 교회에 있을 동안 목사의 책무를 완수하려고 한다.

요즘 여러 가지 일로 목사의 책무가 무엇인가를 자꾸 살펴보게 된다.

그리스도인이 무엇인가? 목사는 좋은 그리스도인을 배출하고 양육하는 사람

그런데 좋은 그리스도인은 어떤 사람일까? 예수님은 무엇을 위해 죽으셨는가? 인류 구속

그런데 왜 신약 성경에는 구원의 복음 외에 많은 부분이 있을까? 특별히 서신서, 교육(예언), 성화

그러니까 성경은 천국 가는 데만 필요한 것이 아니라 살아 있는 그리스도인들의 변화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하는 성도들, 그러려면 빛과 소금의 자질이 있어야 하지 않을까?

그 자질은 무엇인가? 성경 지식일까? 내가 보니 아닌 것 같다.

한 목사를 보면 참 슬픈 생각이 든다. 성경 지식이 많아 자랑이 보통 심한 게 아니다. "나는 모든 것을 알므로 천국에 가면 심심할 것이다." 목회를 하면서 가정 있는 여자 성도 성추행, 결국 경찰 조사, 기소 의견으로 검찰로 송치됨, 우연히 고발장을 보게 됨. 증거물을 보게 됨. 그 안의 내용을 보면 정말 이 사람이 제 정신인가? 정말 그리스도인인가? 목사인가? 그런데 이런 상황 속에서도 매주 설교를 하고 설교를 올린다. 가증한 일이 아닌가? 피해자와 가족, 목사의 아내, 가족 교인들이 입을 피해

이런 것을 보면서 그리스도인의 자질은 성경 지식이 아님을 알 수 있다.

목사 등 직무 수행이 아님을 알 수 있다.

혹시 교회에서 많은 일을 하는 것은 아닐까? 그러면 빛과 소금, 아니다.

금요일 문자: 6년 전의 목사 컬럼 〈교회는 일하러 오는 데가 아니다〉 읽기 권고

일을 통해 자기만족을 얻거나 자기를 과시하려고 교회에 오면 안 됩니다. 교회는 조건 없이 남을 섬기는 곳이고 성경으로 교육받고 변화된 사람들이 교제하는 곳입니다. 일로써 으뜸이 되려고 하면 교회에서는 반드시 실족하게 됩니다. 왜냐고요? 교회는 그런 곳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일이 아니라 그리스도(그리스도의 성품과 인격)!

한 마디로 교회와 성화는 자기 부인(self denial)이 핵심입니다. 그것이 기독교의 본질입니다.

이것을 통해 제가 앞으로 교회를 끌고 갈 방향이 정해진 것 같습니다.

교회는 구원 자랑하는 데가 아니다. 일하는 데가 아니다. 성경 지식 함양하는 학원이 아니다.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를 닮은 사람이다. 교회는 그런 사람을 만들고 세우는 곳이다.

목사는 그 일에 매진하는 사람이다.

그 결과 이런 사람들이 빛과 소금, 어디서나, 가정, 교회, 사회, 국가

성경은 이것을 그리스도의 마음과 생각을 가진 사람이라고 말한다.

이제 사랑침례교회는 13년 되었고 5월부터는 14년째로 들어간다.

2008년 4월의 어느 날 10여 명이 모여서 시작한 교회가 이렇게 큰 규모로 변하였다.

유튜브 구독자가 30만 명 채널, 여하튼 크게 영향을 미치는 교회

이 시점에서 목사의 가장 큰 고민: 교회만 큰 것이 아닌가?

허영에 찬 그리스도인 혹은 심지어 가짜 그리스도인을 양산하지는 않는가?

정말로 목사를 통해 그리스도와 그분의 말씀을 존중히 여기고 그분의 가치대로 사는 성도를 만들고

있는가?

우리 모두가 그리스도의 심판석 앞에서 서서 회계 보고해야 한다.

나는 목사로서 목사의 책무 수행에 대해 회계 보고할 것이다.

이를 위해 조금 늦었지만 지금이라도 목사의 사명을 감당해야겠다는 생각이 머리를 스친다.

지금까지 13년간 교회를 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방문하고 일하다가 이런 저런 이유로 떠났다.

아마 다 있었으면 5-6000명은 되었을 것이다.

교회에서 잘 적응하다가도 여러 사람들이 떠나는 것을 보았다.

목사나 목사의 처 그리고 교회 시스템, 혹은 사람들, 교리 등 여러 가지 이유

요즘 가만히 내 처와 함께 과거를 살펴본다. 왜 그분들은 교회를 떠났을까?

결론: 자기 뜻을 이루지 못해서, 자기 뜻대로 교회가 움직이지 않아서

우리는 결코 이 교회가 완전하다고 말하지 않는다.

그러나 세상의 어떤 교회보다도 성경을 많이 가르치고 속박하는 것이 거의 없다.

고후1: 24의 목표, 우리는 너희의 믿음을 지배하는 자가 되려 하지 아니하고 오직 너희의 기쁨을 돕는 자가 되려 하나니 너희는 믿음으로 서느니라(고후1:24).

여기 남은 분들 대개 이런 것들을 좋아하는 분들

우리 교회에 와서 자기 뜻을 펼치는 것, 자기 일을 하는 것 좋은 일이다.

그러나 성경과 교회의 룰 아래에서 해야 한다.

그래서 목사와 목사의 아내, 집사와 지역 인도자(자매), 교사 등이 있다.

이런 모든 것을 겪으며 생존한 사람이 여러분이다. 함께해 주셔서 감사드린다.

우리 교회에는 목사 컬럼에 〈사랑침례교회에서의 생존 전략〉이 들어 있다. 2015년 1월 10일

안녕하세요?

교회가 성장하고 성도들의 수가 늘어나다 보니 목사의 손길이 닿지 않는 영역이 생기는 것 같습니다.

교회 역시 다양한 성향의 사람들이 모인 곳이라 말도 많고 탈도 많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미 기존 교회의 어려움과 혼선에 대해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시행착오를 반면교사로 삼아 바른 신약 교회를 하기 위해 여기에 모여 있습니다.

문제가 생기면 회피하거나 덮지 말고 바르게 해결하려고 노력하면 좋겠습니다.

가장 나쁘고 위험한 것 중의 하나는 쓸데없이 남을 비방하고 다니는 것입니다.

이 경우 후에 비방이 진실이 아님이 드러나도 비방의 대상은 결국 큰 어려움을 당하게 됩니다. 이는 사실이 아닌 성급한 언론보도로 인해 큰 고통을 당하는 유명인들의 사례에서도 잘 알 수 있습니다.

이보다 더 큰 문제는 상대방과의 개인적인 관계에 따라 말과 의견을 이리저리 바꾸며 자신의 확실한 입장을 표명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되면 문제의 핵심은 놓치고 사람 눈치만 보게 되며 혼란만 가중되어 성경의 기준대로 따를 수 없게 됩니다.

그러므로 교회에서 문제가 생기는 경우 개인적인 인간관계를 초월해서 성경의 기준에 따라 자신의 태도를 "예"와 "아니오"로 확실히 하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그렇게 행동하는 사람이 사람의 눈치를 보지 않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그리스도인일 겁니다.

앞으로 이 교회에 목사로 있을 동안 내가 힘써 해야 할 일

그리스도 앞에 좋은 성도로 저와 여러분을 세우는 것

인원을 늘리는 것이 최대 목표가 아니라 좋은 사람들을 만드는 것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사람

사도 바울의 목표(골1:28), 우리가 그분을 선포하며 각 사람에게 경고하고 모든 지혜로 각 사람을 가르침은 우리가 각 사람을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완전한 자로 드리고자 함이니라.

나의 문제: 나는 공학을 평생 해 온 사람, 공학은 원래의 독창성이 목표가 아니고 대개는 남이 해 놓은

것을 더 좋게 만드는 것이 목표

성경 수십 번 읽고 많은 주석/책을 읽었지만 내게도 성도 양육을 위해 좋은 교사가 필요하다.

나는 학교에서 열전달 학문 전공, 박사가 되었다. 열이 전달되는 원리 웬만큼 설명 가능

그럼에도 학교에서 교과서를 쓴다. 같은 열전달을 전공했지만 가르치기 위해 좋은 책을 짓는 사람들이 있다. 나는 그런 책을 교과서로 선정하여 학생들에게 알려주고 보라고 하고 그 교과서를 중심으로 원리를 가르치며 내가 아는 것들, 경험한 것들을 추가한다.

지금까지 나의 설교/강해/가르침이 거의 다 그랬다.

교회 홈페이지에 밝혀놓았듯이 나는 영어 바이블 소프트웨어를 사용한다.

그리고 위어스비, 럭크맨, 매튜 헨리, 반즈 등의 주석을 반드시 본다.

그리고 주어진 텍스트를 강해한다. 맥 잡기 같은 경우 위어스비 주석을 많이 사용한다.

왜 가장 좋기 때문에

이 외에도 존 파이퍼, 존 맥아더, 스티븐 로슨 등의 설교를 유튜브로 듣고 책으로 읽고 내 것으로 소화해서 전달한다. 조직 신학은 윌밍턴 등

자, 이제부터는 성도의 성화에 초점을 두고 설교를 하려고 한다. 목회를 하려고 한다.

나는 전문 목사가 아니다. 그래서 결국 배워야 한다.

그런데 배우려면 책이 있어야 한다. 책들을 찾기 시작한다.

그래서 여기저기 찾아보고 얻은 결론: 존 맥아더, 스티븐 로슨 그리고 R. C. 스프로울 이 세 사람의 책들이 성화를 가르치고 실천하는 측면에서 가장 좋다.

공통점: 하나님을 두려워한다. 매우 박식하다. 잘 가르친다. 삶에 티가 거의 없다.

그런데 하나의 문제: 이들은 다 칼빈주의자들이다. 우리는 칼빈주의를 믿지 않는다.

내가 다닌 팬사콜라 크리스천 대학에서 가장 크게 반대하는 것: 오순절 은사주의와 칼빈주의

이 문제는 여러 차례 이야기했지만 아직도 질문하는 분들이 있다. 2018년 6월 11일, 〈존 파이퍼, 존 맥아더, 팀 켈러, 스티븐 로슨 등 칼빈주의자들을 가끔 언급하고 소개하는 이유〉

그래서 오늘도 이것에 대해 잠시 대답하려고 한다.

나는 칼빈주의를 믿지 않습니다. 내가 완벽하지 않듯이 많은 칼빈주의자들도 완벽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들 중 다수는 내가 가지고 있지 않은 좋은 것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내가 그들에게서 그것들을 배워야 합니다. 어떻게? 생선을 먹을 때 가시를 제거하고 살만 먹듯이

그래서 나는 앞으로 이런 분들이 기록한 위대하신 하나님의 속성, 성화의 본질, 실제적인 성화 사례 등을 먼저 읽고 소하해서 여러분에게 전달할 것입니다.

그래서 벌써 금요일에 생명의 말씀사를 통해 스프로울의 13권 책을 샀고 영어 원서도 아마존 킨들로 사서 보려고 합니다.

요점: 앞으로 나도 배워 가면서 여러분에게 좋은 살을 먹이려고 한다.

위어스비, 맥아더, 로슨, 스프로울 등 우리가 배워야할 말씀을 가르치는 분들

단 성경에 위배되는 것은 어느 누구에게서도 취하지 않는다.

오늘 제목, 세상과 전쟁하는 그리스도인

세상과 싸우려면 세상이 무엇인지 알아야 한다.

<u>오늘 나는 믿지 않는 세상과 싸우라고 말하지 않는다.</u>

성경이 말하는 세상: 1. 하나님의 창조 세상(아름답다, 중립적이다), 2. 이 세상의 통치권이 첫 사람 아담에게 주어졌으나 아담이 그의 유혹에 넘어가면서 세상의 가치 철학 문화, 교육, 정부 등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방향으로 바뀌게 되었다. 성경을 이것을 세상이라고 말한다.

그러므로 마귀에게 속한 세상 시스템과 필사적으로 싸우는 성도가 되어야 한다.

사도 바울 로마서 강해, 1-8장 칭의, 9-11장 이스라엘, 12-16장 실제적인 성화 문제

12장 강해: 우리는 구원받으면 다 하나님을 섬기기 원한다. 그래서 열심히 일하면서 섬긴다.

그런데 구약 시대 이스라엘 죽도록 섬겼는데 10장에 가서 보니 허사,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원하는 것을 함(1-3), 이것이 자의 의, 자기만족, 안 된다.

그것을 피하고 12:1에 있는 것처럼 합당한 섬김을 하려면 우리 몸을 거룩한 희생물로 드려야 한다.

요즘 큰 딸과 대화, 그리스도인이 무엇이냐? 자기를 부인하는 사람, 그것이 희생이다.

그 일을 위해 우리 몸을 정결하게 해서 우리를 부인하고 하나님께 드려야 한다.

드린다는 말은 하나님 옆에 둔다는 말이다. 하나님 옆에 두지 않으면 세상 옆에 두게 된다.

2절은 몸을 하나님 옆에 두는 방법

세상에 동화되지 말라: 동화 conform, 형태가 하나가 되는 것

변화를 받아야 한다. transform, 형태 위로 넘어가는 것

세상에 동화된다는 말의 뜻: 하나님 밖에 있는 세상 사람들이 좋아하는 것들을 그대로 따라서 한다. 세상에게 인정을 받으려 한다.

R. C.스프로울 이야기:

초등학교 6학년이었을 때는 온 세상 사람들에게 자기가 최고라고 자랑하는 것이 가장 큰 기쁨이었습니다. 이를 위해서는 세상의 온갖 것을 다 알아야 합니다. 아이들에게 자기가 모든 것을 다 알고 있다는 것을 과시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사춘기를 지내고 성인이 되면서부터는 이것이 정말로 유치한 일인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스도인의 가치를 지키는 데 이 세상의 지식, 이 세상의 칭찬이 도움이 되지 않음을 발견하기 때문입니다.

어렸을 때는 동료들에게 속하기 위해(왕따를 당하지 않기 위해) 세상이 추구하고자 하는 모든 것을 그대로 따랐습니다. 옷, 모자, 언어, 신발, 영화, 음악, 취미 등을 주변 사람들이 하는 것과 똑같이 하고 누구보다 더 열심히 하여 세상 문화 측면에서 으뜸이 되려고 하였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것이 세상에 동화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이 되어서는 세상의 가치들이 최우선이 되지 않습니다, 또한 세상을 따라갈 필요를 느끼지 못합니다. 세상 사람들이 무어라 하는가에 큰 관심이 없고 하나님이 성경을 통해 주신 가치들을 지키고 살려고 노력합니다.

이것이 세상과 싸우는 성도들의 특징입니다.

이러려면 변화가 있어야 합니다. 생각을 새롭게 해야 합니다. 우리의 생각이 우리를 지배하므로

즉 세상을 새로운 시각으로 바라보아야 한다.

이 세상을 이용하는 자들은 남용하지 않는 자처럼 되라. 이 세상의 외형은 사라지느니라(고전7:31). fashion

매사에 고전7:31 말씀이 생각나야 한다.

그러므로 구원받은 뒤에는 이런 일이 생겨야 합니다.

1. 다른 사람들이 무엇을 하는지, 추구하는지 알기 위해 페이스북 등 모든 SNS를 뒤지며 돌아다니는 일에 시간을 쏟지 않습니다.
2. 인기 가수(연예인), 인기 노래, 인기 영화 등 세상 사람들의 관심사를 알기 위해 인터넷을 뒤지는 일을 하지 않습니다.

이런 것들이 더 이상 우리의 최대 관심사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성도 여러분께서는 여러분의 삶을 이런 척도로 재 보시기 바랍니다.

1. 세상의 관심사를 알기 위해 나는 하루에 얼마나 신문, 인터넷, 페이스북, 유튜브(각종 SNS)를 보는가?
2. 혹시라도 최근 인기인, 인기물, 인기 사실에 대해 알지 못하여 동료들로부터 따돌림을 당하지는 않을까 얼마나 걱정하는가? 많이 안다고 자랑하고 싶지 않은가?

여러분과 저의 대화(언행)가 종일 세상 것에만 있으면 과연 우리가 그리스도인일까 깊이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심지어 교회에 와서도 내내 세상 것만 이야기하면 과연 그 사람이 다시 태어난 그리스도인일까요?

저와 우리 성도들은 하늘의 것, 영원한 것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세상을 무시라하는 말이 아니고 우리의 식욕이 어디에 있는지 점검해 보라고 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세상 것만 이야기하는 사람은 그리스도의 관점에서 유치한 사람들이다. 최악의 경우 그들은 다시 태어나지 않은 사람들이다. 말로만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사람들이다."
이런 평가가 우리에 대한 평가가 아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리스도인의 정체:

그러나 나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어떤 것도 자랑할 수 없나니 그분으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에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있고 나 또한 세상에 대하여 그러하니라(갈6:14).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어떤 사람이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속에 있지 아니하니
세상에 있는 모든 것 즉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인생의 자랑은 [아버지]에게서 나지 아니하고 세상에서 나느니라.
세상도 그것의 정욕도 사라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토록 거하느니라(요일2:15-17).

결론

앞으로 우리는 그리스도인의 본질에 대해 공부하려고 한다.
우리 모두가 그리스도의 심판석에 서게 된다는 것을 기억해야 한다.
그리스도인은 세상에 대해 십자가에 못 박힌 사람
그러므로 세상의 외형대로 따라가지 않는 사람
이런 사람이 그리스도의 형상에 일치하는 사람
우리 모두 이런 사람을 목표로 두고 거룩한 성도의 삶을 살아가자.